

Emmanuel

임마누엘



송년 특집 Vol.4, Dec. 29, 2013

CONTENTS

I 행진 스타일

- 한국 이민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4-5
- 서른세 해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야기 6-7
 -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8
 - 마음을 두드리는 소중한 기억들 9
 -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들으시고 은혜로 주신 교회 10-11
 - 그리스도인의 기쁨 12-13
- 초대교회의 모습 14-15
- 형제 교회 이야기. 맛 좋은 사과를 건네라 16-17
- 이란 지하교회, 청개구리들의 승리 18-19
- 한국 대 이란 축구 경기!! 짜잔~!! 20-21

II 소금과 빛의 생각

- 어머니의 기도 22-23
- 언더우드님의 기도 24-25
-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26-27
-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사랑 28-29
- 선교하시는 하나님 30-31
-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여행 32-33
- 직장 선교회, 실리콘밸리의 빛의 자녀들 34-35
- 하나님 찾았어요! 36-37
-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 37
- 영혼 구원... 그 십자가의 길! 38-39

III Fortran Drive 사람들

- 친구 소개장 40-41
- 항상 옷자 42-43
- 예복과의 만남. 옛날에 예배당 44-45
- 나의 찬양 46-47
- 송년 가족 모임 음식, 사부사부 48-49
- 함께 쓰는 동화.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 50-51
- 크리스천 영화방, 이란의 외치는 소리 52-53
- Thank You Tree 54-55
- 주신 모든 것에 감사 56-57
- 2014 임마누엘 새 일꾼들, 책을 읽다. 58-59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60-61
- 2013년을 보내면서... 62-63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 12:37, 38)

성경에는 많은 무리의 무리가 나온다.

아담과 하와 이래 이 땅을 거쳐 간 사람들은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

복을 받은 무리도 있고 악행의 끝에서 이름이 남기어진 이들도 있다.

수많은 잡족과 함께 출애굽하는 무리의 긴 행렬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환호하는 흰옷 입은 무리는 소망의 대 서사(敍事)가 아닌가!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

이 무리의 사랑이야기 네 편을 나눈다.

하나, 우리가 선 자리 미국 내의 한인 교회 역사,

둘, 서른세 해 우리 교회 임마누엘 이야기,

셋, 예수님의 참 증인이었던 초대 교회 모습,

넷,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형제 교회 이란 교회 이야기

어두운 세상,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우리와 그들이 비추는 빛과 빛이 연결될 때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은 낮이 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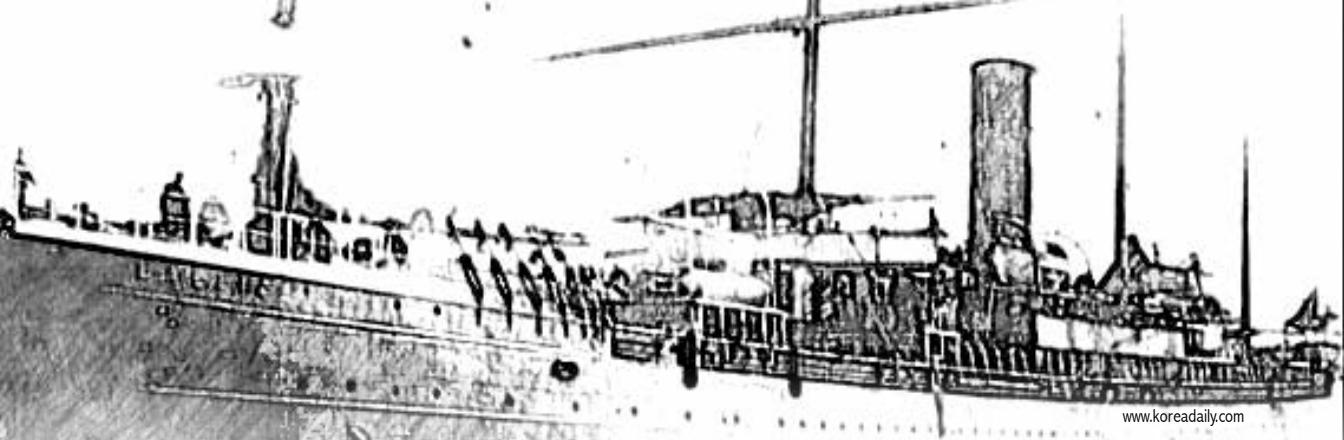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 17)



www.koreadaily.com

한국 이민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 조국의 미국 공식 이민 역사는 의료선교사였던 알렌 공사의 중재로 고종 황제가 노동 이민을 허락, 1903년 1월 13일 101명이 하와이에 도착함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대부분 감리교회 신자들로 인천항을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서 배를 갈아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할 때까지 선상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 하와이 Oahu 섬 사탕수수 농장들에 배치되자마자 그들은 농장마다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중 Waialua 지역 Mokuleia 농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전신인 '한인 감리교 선교회'를 세움으로 한인 이민 역사 최초의 한인 교회가 세워진다.

미국 본토에서도 1903년부터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기도회 혹은 예배 모임이었다가 서서히 공식 교회로 모습을 드러낸다. LA 지역에서는 1904년 3월 11일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 한인들이 모여 우리말 예배를 드리면서 '로스앤젤레스 한인 감리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1906년 5월 10일에는 평양신학교 교장이던 마포삼열(Samuel A. Moffett)목사와 방화중 전도사의 주도로 '나성 한인 연합 장로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사는 베이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이다. 미국 이민기록에 의하면 상항에는 1880년경부터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한인 인삼장사들과 적은 수의 유학생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03년 9월

23일 안창호, 이대위 등 10여 명의 정치 망명인과 유학생 그리고 소수 상인이 교인 속소를 순화하면서 기도회를 갖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효시가 된다. 공식 교회는 1906년 12월 16일 미국 남감리교회 태평양지역 동양인 선교 지방감리사 C. F. Reid 목사와 양주삼 전도사(초대 담임)가 2350 California St.에 상항 한국인교회를 설립함으로 세워진다.

산호세 지역 한인 교회 역사는, '상항 연합감리교회'가 창립된 지 100여 년이 되었고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가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뒤인 1970년에 시작된다. 산호세 지역의 최초 교회는 1970년 다니엘 최, 채수연, 최명환 세 분 목사님이 공동 목회를 하며 세워졌으며, 후일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된다. 이어서 1971년 2월 문대연 목사님에 의해 'Pinewood Baptist Church'에서 동양인을 대상으로 영어 목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가 된다. 한편 채수연 목사님은 1972년 산타클라라 한인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후일 안디옥 침례교회로 그리고 다시 주님의 침례교회로 이어진다.

한국 교회 역사와 이민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 첫째 '기도의 열정'이다. 한국 교회는 1900년대 초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 세계 기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또한, 철야를 하며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산 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둘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열정’이다. 해외에서 중국인들은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일본인들은 일본식 정원을 꾸민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인들은 해외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먼저 세운다. 미국 곳곳에 한인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으며, 아프리카를 가도 그렇고 중동 지역을 가도 비밀 예배 처소를 만든다.

지난 백여 년 동안 이민 교회는 교민들의 삶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교민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민 생활의 아픔과 고달픔을 나누고, 조국의 그리움을 달래왔다. 정든 고국을 떠나 이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교민들을 물설고 낯선 이국땅에 정착시키는데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도 교회의 몫이었다. 1905년 이후 우리 조국이 일제의 침략에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 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 정부를 도우며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편 것도 교회가 중심이었고,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고종황제의 정치고문이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D. W. Stevens를 저격한 장인환, 전명운 의사는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세운 창립교인 25명 중에 속했던 크리스천들이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민 사회에 공헌한 다른 한 예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들 수 있다. 그는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우고, 밀러 목사가 경영한 구세학당(救世學堂, 현재 경신고등학교)을 졸업한 후 고향에 내려가 학교와 교회를 세웠다. 1902년 22세에 그는 교육학과 신학을 배워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목표로 미국 유학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청소부로 일하던 안창호는 어느 날 길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삼 판매를 하다 구역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독립운동에 앞서 교민 사회를 먼저 계몽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크리스천들과 함께 동포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청소하고, 커피를 달아주고, 정원을 가꾸어주며 ‘깨끗한 집 만들기 운동’

을 벌인다. 인삼행상들의 영업구역을 평등하게 만들어 다툼을 예방하고, 인삼가격을 협정하여 출혈경쟁이 없게 하였다.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후에는 교포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와 생활향상을 목표로 1905년 4월 5일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창립한다. 이 공립협회는 대한인 국민회가 창립될 때까지 교포 사회의 영사관 구실을 했다. 또한, 야학을 개설하여 교포들의 교육에 힘쓰는 한편, 순 한글 신문인 공립신보를 발행했다. 이 모든 일에 중심이 되었던 그는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세웠던 초창기 멤버였으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이처럼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교민들은 한국 이민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민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데 공헌을 하였다. 이제 한인 이민 역사가 만 11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미주 한인 교회는 4,200여 개에 이르며, 해외 한인 교회도 약 5,700여 개가 되었다. 자랑스러운 이민 교회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도의 열기가 식고 신앙이 정체되어가고 있다. 아직도 타민족 목사님들은 “기도하면 한국 교회가 최고”라고 칭찬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한인 교회가 기도에 열정 있는 교회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 한인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결국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시42:1-2).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기도에 거룩한 불이 붙고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와 선교가 모두 살아날 것이다. 다시금 미국과 세계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신앙의 기본인 예배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손원배 목사

서른세 해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야기

‘숙제 장로교회’
‘큰 교회’
‘가족의 놀이터’
‘광야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곳’
‘겸손한 교회’...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이 생각하는
임마누엘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좋으면 좋으니 말할 필요가 없고 싫으면 싫은 소리 하여 행여 상대방을 아프게 할까 말을 안 하신 아흔둘의 김도선 장로님과 최정준 권사님은 서른 해가 넘도록 임마누엘 식구입니다. 적은 식구에서 지금의 큰 교회가 되기까지 늘어난 사람의 수만 큼이나 말도 많아졌지만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시니 감사하다.



스무 해를 같이 해 온 한 식구는 ‘출입문이 하나였던’ 홈스테드 시절의 교회를 그리워한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단 하나뿐인 출입문을 통해 본당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손목 사님과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 예배당 시절 말이다. 삼사백 명의 성도가 각각의 생기있는 지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머리이신 주님의 사랑 에너지를 받던 그때, 점점 불어가는 식구로 인해 2층의 교육관을 증축하던 시절, 미국 교회의 빌린 교실에 주일 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예배당으로 돌아오던 부모들은 광야 교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예배당 앞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모여 차와 떡을 나누던 식구들은 진정 주 안에서 한 떡을 떼던 형제자매였다.

또 한 식구는 목사님 댁의 새식구 환영 월례 주일 만찬을 말한다. 늘어난 식구로 한술밥을 나누는 식구(食口)의 의미가 열어질 무렵, 목사님 댁에서 열리기 시작한 만찬의 상은 주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알게 해 준 소박함과 친밀의 초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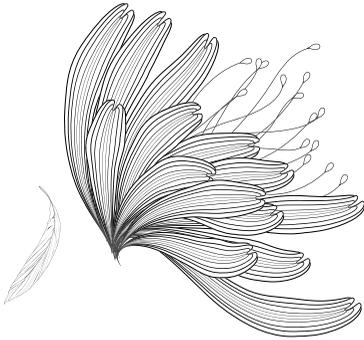
주말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새로 구입한 건물의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긁어모으며 기존 구조물의 잔해를 실어 덤프트럭에 담던 식구들과, 바닥 타일을 이어 붙이고 각 방의 보더를 둘러치느라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닥을 기기 시작했던 식구들은 새예배당을 지어 가던 시절을 끄는다. 휘장과 널판, 기둥을 세우며 성막을 짓던 거룩한 백성을 떠올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고” 함께 뒤집어쓴 먼지와 노동의 땀으로 그의 안에서 연결되어진 형제자매와의 사랑을 벅차게 기억해 낸다.

이름 없이 빛나는 별과 같은 이가 많은 교회. 꿩은 무릎이 늘 부르짖는 교회. 묵묵히 대가족을 섬기는 이들. 서른세 해, 그 사랑장을 넘겨 본다.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을 주님의 열 손가락 같은, 이제 은퇴하시는 한 장로님과 애늬 어머니들, 한 권사님과 갓 새식구가 된 막내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임마누엘 식구라는 공동점, 이들의 사랑의 편지에서 그 외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처음 식구가 된 자도 함께 어울려 한 상의 떡을 떼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 자가 모인 임마누엘. 나의 생활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서른세 해 추억을 넘어 ‘처음 사랑’을 품은 무리, 그 비전의 장에 쓰여질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세월이 참 빠르군요. 처음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출석한 것이 2000년 봄날입니다. 약 300명 가까이 모이는 아담한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여러 성도님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원배 목사님의 앞머리가 많았을 때니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그즈음 현 찬양위원회 김병언 장로님이 집사로 1부성가대 지휘자를 하시며 저한테 무조건 찬양대에 가입하라고 부탁하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유택종 장로님이 집사 시절 저에게 목장을 소개할 때 소나 말 돼지를 기르는 목장으로 생각하여 한참을 웃던 일도 있었답니다. 그때 유 장로님 인도로 최정규 장로님 목장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으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이듬해 2001년 이동우 장로님 목장으로 분가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고 2003년도에는 목사 임직을 받고 Palo Alto 목장으로 분가하였습니다. 그때

는 많은 목자님이 새신자 환영회에 참여하여 새신자를 앞다투어 모셔가려는 아름다운 기억도 있습니다.

많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불신자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했던 열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한 영혼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까 기도했는데 여러 목원을 통해 불신자를 모셔와 어느 해인가 7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쁘셔서 응답 주신 것 같아요. 목장을 위해 집안의 리빙룸과 다이닝룸을 일자로 설계 건축도 해봤습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친교위원을 맡아 봉사할 때 많은 분이 동참해주셨고요 지금까지도 지구력 있게 봉사를 맡아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제1교육위원을 맡으면서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는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따라 하는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보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올해로 시무장로 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장로 장립할 때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교회를 지키고 섬기기로 작심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부끄러운 일뿐이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더 정성을 들일 걸 하는 지나간 후회뿐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많은 장로님들이 충성을 다하여 목사님을 보필하며 제단을 지킬 때 복되고 더욱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오남근 장로

마음을 두드리는 소중한 기억들

Willow Street에 있었던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예배당과 허름하게 딸려 있던 조그만 별관이 전부이었다. 오래된 본당과 다락방 같은 몇 개의 교실, 조그만 부엌과 다용도실로 사용되었던 친교실. 예배 후, 약 2백여 명 온 식구들이 친교를 하던 앞마당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세련되고 화려한 짜임새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필요한 곳에는 조용한 섬김의 손길이 늘 있었음을 느끼곤 했다.

특히 세상의 '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과 손길이 그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무숙자 사역을 하는 'City Team Ministry'를 돕기 위한 성가대의 매우 소박한 자선 음악회를 생각해 본다. 조명은 물론이고 무대 장치나 번듯한 순서지도 없었던 허름한 본당에서 드러진 음악회였다. 그래도 소외된 자들을 돕는 마음은 즐거웠고 그런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기만 했다. 많은 가정이 장을 볼 때, 자녀들과 함께 무숙자들을 위한 캔 옥수수 사는 것을 실행하기도 했다. 자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모으기 시작했고 모은 캔들이 그곳에 전달되었다. 어느 해 가을엔 여전도회에서 City Team 창고에 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정리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 그 후엔 목장별로 음식을 가져가 자녀들과 함께 무숙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곤 했는데 그 사역은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

지금처럼 자원봉사 제도나 관리를 하시는 분도 물론 없었다. 그러나 교회의 이곳저곳을 청소하시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화장실 청소를 손수 하시던 목사님, 예배 후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손길. 그 후 구역별로 순서를 정해 모든 교인이 교회 청소를 하였는데 Homestead Rd.로 이사 와서

도 얼마 동안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 위에 나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신앙의 선배님들이다. 지금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 가신 전속진 권사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던 날들을 되새겨 본다. 언젠가 차를 타고 교회로 가던 중이었다. 한인 사회에 일어났던 비극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마음 아파하시던 권사님의 영혼에 대한 열정은 나의 기도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매우 귀한 신앙의 선물이었다. 권사님께서 손수 떠 주신 담요를 겨울의 문턱 싸늘해진 이 아침에 창밖을 바라보며 온몸에 감싸니 그분의 사랑의 체온이 나의 온몸에 흘러내린다.

현재와 같이 단계별 새가족 프로그램이 없었던 그 시절, 언제나 마음과 집을 활짝 열어 놓으시며 새가족들을 품어 주셨던 정수영 장로님, 정연순 권사님에게도 늘 감사하다. 우리 가정이 처음 우리 교회에 적응하도록 늘 관심을 두고 집으로 초대하셔서 권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 주셨던 많은 날은 단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새식구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었던 귀한 사랑의 섬김이었다.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교회를 지켜 오셨던 신앙의 노부모님들, 신앙을 키워 주신 목사님과 선배님들, 동역자들과 귀한 지체들의 헌신을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감사함을 드린다. 해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어 매우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럴수록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드린다. -최승희 권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들으시고 은혜로 주신 교회



이 세대의 많은 교회가 서로 다투고 깨어져 상처를 받고 갈라지는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보기 드물게 갈라졌던 세 교회가 하나를 이룬 교회입니다. Homestead 교회에서의 교회생활을 회고해 봅니다. 처음엔 그리 많지 않은 교인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였지요. 그리고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의 삶을 사시는 덕있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타 교인들은 받지 않을 것이며 믿지 않는 새신자만을 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상처 받고 찾아온 교인들을 받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라는 불평이 일었고 그 후 목사님께서 말없이 찾아오는 성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작은 교회에 본당도 좁고 친교실도 작아 교회 뜰에까지 교인들로 북적대기 시작했고 본당 뒤 작은 방들을 트고 2층을 올리는 증축 공사를 하였으나 3년 만에 다시 포화 상태가 되어 여전히 넘치는 교인,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근 상가 주차장과 길가를 가득 메운 차들, 주차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 그 틈

에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사고와 문제도 많아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큰 예배공간이 필요했고 주차장이 많은 교회 주시기를 염두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그리고 중보기도팀들이 2층 작은 방에 모여 의자 없는 바닥에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하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는 숨은 기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숨어서 말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에 동참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은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Can을 주워 팔아 건축헌금을 내시기도 했고 노후에 쓰기 위하여 모아 두었던 주머니를 털어 건축헌금을 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보셨고 드디어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새 교회 자리를 물색하러 나섰으며 이 작은 교회를 팔기로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건물을 사겠다는 교회가 생겼고 우리 또한 현재의 교회 자리를 계약하게 되었으며 대대적인 개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소를



들고 찾아가 보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이기에 염려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하지 않을까! 그 힘든 공사가 끝나고 헌당예배를 드리게 될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본당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방들, 우리 노인들은 어디가 어딘지 찾아해매기도 했습니다. 넓은 친교실, 인근 회사의 주차장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이제는 2,3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고 100개가 넘는 목장과 목자들이 열심히 섬기는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커지고 안정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전 교인이 옆드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요, 많은 신도가 있는 교회라고 자랑만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직약으로 어두워가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계시록의 초대 일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되새기며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새로워져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 권사님들



“...본당과 그 주변의 지붕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비 오는 절기를 만났지만, 공사는 강행되었고 120 명이 넘는 인부들이 동시에 투입되어 작업한 것도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건축에 참여한 80 여 명이 넘는 교회의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단축되었고 예산이 크게 절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산호세 지역 건축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미리 훈련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손길을 펼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김항식 장로 ‘서른살 임마누엘’에서 따옴



그리스도인의 기쁨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회가 위기를 만날 때면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하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저의 군 생활 중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휴가 나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군 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 외에는 큰 기대 없이 입대했던 저에게 공수부대 배치의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루종일 이어지는 공수훈련과 점점 다가오는 강하 날짜는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훈련이 고되질수록 교관들은 힘들면 언제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언제 포기하겠다고 손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반을 넘어서 어느 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손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호루라기가 울리더니 교관이 훈련을 멈추고 우리를 계단의자에 앉혔습니다.

마침 부대교회에서 위문을 나왔던 것입니다. 나누어준 간식을 딱딱 해치우고 숨을 고르고 나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당신도 이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훈련보다 더 힘들고 큰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기



위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고된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여전히 두려움은 남았으나, 그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인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오고,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공수훈련을 받을 때처럼 직접 설명을 들을 기회는 없었으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 뜻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하던 날, 목사님을 비롯해 성도님들의 표정에 담겨있는 '기쁨'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궁금증은 새가족반 교육을 통해 풀리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된 새가족반 교육은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자 그동안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알 수 있었던 첫 주 교육을 통해 아직 남아있던 교회에 대한 낯설과 서먹함이 친근함과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장 예배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둘째 주 교육을 통해 매주 목장 식구들과 나누는 삶과 말씀에 대한 교제에 담긴 의미와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새가족반 교육을 받은 분들과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었던 셋째 주 교육을 통해 이제 온전히 임마누엘 교회의 교인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특히 좋았던 것 중 한 가지는 가까운 거리에서 목사님을 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며 기쁨

으로 빛나는 목사님의 표정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제 마음속에도 많은 울림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전하는 기쁨. 그것은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하던 날 성도님들의 표정에서 보았던 그 '기쁨'이기도 하였습니다.

새가족반에서 뚜렷이 만난 그 기쁨은 교회뿐 아니라 목장에서도 함께 하였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매일의 하루들이 주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간들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떠한 일이든 그 속에 감사할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가진 나약함을 고백하고 목원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시간 중에 더 많은 용기가 샘솟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굳건히 이끄시고 낮은 자세로 삶과 신앙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시는 목사님과 부목자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스스로를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부부에게 목장 예배와 주일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으로의 연수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얻을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목자님 부목자님 목장식구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저희 부부는 임마누엘 교회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강지웅 성도

초대교회의 모습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이미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전도로 시작되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유대인 율타리를 넘어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요 모형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행1:14)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나가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다. (행 2:42)
예수님도 때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소그룹의 제자들을, 때로는 5천 명의 무리(오병이어, 산상수훈)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초대교회로 이어졌고 사도들을 통한 말씀의 가르침과 교육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

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딤후3:15)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말씀 교육에 열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행2:46)
초대교회는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교회는 개인 한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2:46) 각 성도가 집에서 모여 기쁨으로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 우리 교회의 가정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주 안에서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행 2:44-45) 나의 개인 소유가 아닌 하나님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 다. (행 2:47)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또한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각종 문제가 생기듯이 초대교회에서도 분쟁과 원망과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 대상의 문제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행6:1)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고전 1:12)와 같이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편당에 대해(고전 11:18-19)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송사도 있

었습니다. (고전 6:6-7)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약 3:16) 말씀처럼 예나 지금이나 시기와 다툼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 일군으로 세우고 일을 맡겼습니다.(행 6:3) 세상 경험, 세상 지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여러 지체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열심으로 주 앞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 가슴 뛰는 설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목장을 중심으로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 구제의 손길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는 교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역 사회와 나아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 초대교회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광수 장로

맛 좋은 사과를 건네라

씨니베일 이란 교회를 다녀와서(Iranian Christian Church)



인구센서스나 각종 설문지의 종교를 묻는 항목에서 억울함을 느껴본 적은 없는가?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Christianity가 여타 종교와 함께 단지 체크마크 하나로 구분되니 말이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중심일까?

1987년 국교이며 그들의 identity이고 삶의 문화인 무슬림에서 개종한 네가족이 세운 이란 교회를 방문하였다. Kamil Navai 목사님은 미국인 크리스천 친구의 평안의 눈동자, 그 근원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1979년 혁명을 거쳐 이란 사회는 무슬람 정권의 압제 속에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란의 장례식은 마치 고대의 장면들처럼 아직도 통곡과 애곡, 자해로 치러진다고 한다. 사회 전반의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 침울함, 당연시된 가정 내의 폭력과 살인 문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강제적 권위에 대한 복종과 분노가 이란의 영적 단면도이다. 현재 씨니베일 교회의 성도 85%가 이런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온 무슬림 개종자이며 난민들이다.

이들의 복음 전파는 행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주릴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며 헐벗었을 때 옷을,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 주는” 이들의 난민 사역은 난민들에게 “왜 우리를?”이란 의문을 품게 하였고 많은 이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다.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산드라도 난민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살아있는 생선 바구니를 든 거룩한 이가 “나를 따

르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꿈을 꾸며 많은 고난 끝에 항상 함께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병아리들이 알에서 깨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본 것을 어미로 알고 따르듯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한 난민들을 환영하는 공항의 자원봉사자, 그 얼굴은 그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엄마의 얼굴이다. 봉사자의 집에서 2-3주를 머물게 하며 그들의 고향 음식을 먹여주고 학교와 병원, 영어교육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에게 주를 대하듯 사랑을 베푼다. 교회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초대된 난민 가족들은 교회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에 놀란다. 의아해하며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교회를 방문해도 여전히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그들은 더욱 놀란다.

이란 크리스천 교회는 20개의 가정교회와 약 220명의 성도, 영어부(Revive) 50명으로 이루어졌다. 이곳 베이지역에 약 5만 명의 이란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월넛 크릭과 새크라멘토에 자교회를 개척하였다. 이란 교회의 미션은 전 세계 이란인의 복음화와 1040 원도우 지역의 복음화이다. Kamil 목사님은 “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무슬림 형제에게 알리기 위해 먼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기도하자고 하신다. 또한, 전도자도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 의 벽을 헐고 생활 속에 마주치는 무슬림 형제에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어 친구가 되어주길 권한다. 자녀의 무슬림 친구가 있다면 친근히 다가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귀한



Iranian Christian Church

임마누엘 식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와 난민 사역 관련 협력사역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임마누엘 식구들의 중보와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엔 우리 임마누엘의 한 가정이라도 이란 난민 가정을 입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난민들의 생활 전 분야의 문화 적응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시간을 드려 섬길 분과 남는 방을 난민 가족에게 내어주어 성령님의 일 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위원회 내지선교부

“올 한 해 선교위원회 내지선교부는 이란 교회를 형제교회로 섬기어 매주 축구 연습과 경기, 우리 고등/대학부 학생들의 난민 자녀 tutoring service를 통해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ICC Refuge Ministry 기도와 자원봉사,
도네이션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408)732-7070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사랑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다.

썩은 사과를 먹고 있는 이에게 “네 사과는 썩었으니 먹지 말라”고 해도 단지 그것밖에 가지지 않은 자는 움켜쥔 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싱싱하고 맛난 사과를 건넬 때 비로소 그는 썩은 사과를 내어버리고 좋은 사과를 먹게 될 것이다. 과일 사과(沙果)와 동음이의어로 용서할 사(赦), 지날 과(過), 즉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의 사과가 있다. 이는 죄의 용서, 죄수를 풀어줌, 탕감하거나 감면함의 뜻이다. 무슬림 형제에게 진실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이, 그 사과를 건네야 함이 명백하지 않은가? -편집부 이윤선

Iranian Christian Church of Sunnyvale
740 East Arques Avenue Sunnyvale
www.iranianchristianchurch.com

이란 지하교회

청개구리들의 승리

정부관리들이 TV에 나와 신약성경을 읽지 말라고 말하는 즉시 사람들은 신약성경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품게 된다. 유토피아와 온 국민의 형제애를 강조하는 무슬림 정부의 이중성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는 이미 공공의 적으로 선포되었다. 이란에서 무슬림이 개종한다는 것은 그저 배교행위였으나 이제는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로 간주한다. 개종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고 아직 공식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신이 내리신 완전한 법이란 뜻의 샤리아법에 따라 무엇이든 자행할 수 있다. 2012년 오픈도어 월드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 50개 기독교 박해국가 중 5위에 랭크되었다.



<http://www.newmediawarrior.net/>



<http://www.youtube.com/watch?v=CONS8gQYKHw>

아이러니한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주께로 돌아온 사람의 수가 과거 천 사백 년 동안 크리스천이 된 이란인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폭력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크리스천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하교회 때문이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있다. 지하교회에 숨어 다윗처럼 춤추며 할렐루야를 계속 외쳐대는 그들의 얼굴은 빛난다(CBN 뉴스 제공, Iranian Underground Church at youtube.com). 손으로 필사한 신약성경의 사본을 나누어 갖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터키 등의 비밀장소나 특수보안된 인터넷을 통해 훈련된다. 그들은 감옥에 수감되면 감옥 내 재소자와 간수들을 전도하니 이들을 체포하는 것도 정부 당국엔 문젯거리다.



주의 은혜는 첨단
시대 인터넷과 위성
방송을 통해 부어지고
있다. 위성 방송은 비밀
병기와 같다. 공식적으로
는 불법이지만 각 개인의 거
실에서 은밀히 시청 되는 위성
방송을 감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슬림
정부가 검열하는 국영방송 프로그램으로는 문화
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이란인들은 외국에서 제
작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근검 절약하
여 위성 수신기(satellite dish)를 산다. 이란의 수도 테헤
란에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나 ‘주몽’이 인기를 얻은
것도 다 위성 방송 덕분이다. 이란인들은 Iran Alive Ministries
(IAM)가 송출하는 24시간 복음 방송을 시청하다 달라스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카운셀러와 목사님의 기도로 주를 영접하고 있다. 이러한 새신자들은 지하교회와 연결되어 믿
음을 키워나간다 (출처: <http://www.iranaliveministries.org>).

누르면 누를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퍼져 나가는 이란의 크리스천. 하지 말라, 보지 말라에 반기를 든 청개구리의 승리다.

“저는 위성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말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세 명의 아이들이 저를 마구 때렸고 저는 집에 돌아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위로하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옳은 일이고 그 세 명의 아이들을 저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그 세 명의 아이가 저를 찾아와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위성 방송의 복음 채널을 틀었고 아이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후 함께 시청하며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
다. 우리 마을 사람 대다수가 복음 채널을 매일 정기적으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소년 Mahmoud의 간증(Iran Alive Ministries에서 따옴).

“한국 대 이란 축구 경기!! 짜잔~!!”





수많은 사람이 밤잠을 설치며 대한민국을 외치고 승리를 기원하던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예배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길 소망하는 분들에게는 감동의 시간이었으며 또한 최고의 축구 경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되돌아봅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축구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던 임마누엘 축구부를 하나님께서는 이란교회 형제님들과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지난 수개월간 축구공 하나를 놓고 함께 땀 흘리며 교제를 해온 이란 형제 교회팀에는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슬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팀에게 공식적인 축구 경기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이 경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경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경기 당일, 환하게 켜진 라이트와 초록 잔디 앞에서 우리는 하

나로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축구와 태권도를 통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경기 종공이 터질 때마다 팀에 상관없이 우리는 'Praise Lord!' 를 함께 외쳤고, 결과는 2:1 이란 형제교회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교회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경기에서 패자는 없었고,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최선을 다했고, 서로 격려했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셨기를, 축구를 통한 예배를 받으셨기를, 함께 한 무슬림 형제자매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임마누엘 축구팀이 더욱 기도와 사랑, 그리고 축구로 선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Praise Lord! -강창범 목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 밝아오는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한국땅을 그리워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의 끝자락에서 황폐해져 가는 이 땅을 보며 기도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 귀한 복음으로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영혼이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보소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울고 있습니다.
분주한 발걸음, 거센 분노, 좌절, 학대, 마약, 자살, 깨어짐, 분리됨, 절도, 강간...
상한 심령으로 부끄럽게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자녀가 아파서 방황하며 울고 있는데,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이, 아내가 짐이 무거워 힘들어 놀리며 울고 있는데,
저는 해 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며
남편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동역자입니다.

아버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돌아와야 할 열방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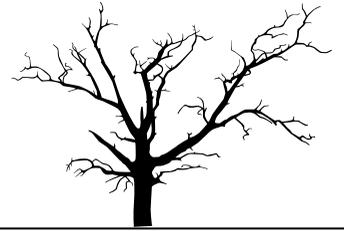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구옥 권사



언더우드의 기도



http://www.eastsarang.com/bbs/board.php?bo_table=dongsatv&wr_id=82&page=5



<http://blog.daum.net/aterb00/12681415>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

- H. G. 언더우드 선교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4년 전 임마누엘 3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암환우들을 섬기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던 베데스다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쁜 카드를 보내드리고,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뜨개질한 모자, 머플러, 무릎덮개를 드리고, 심방을 통해 고통스러운 투병기간을 동행해 드리며 환우 분들을 섬겨온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가는군요. 때로는 혈육 이상으로 마음 아팠고, 때로는 함께 기뻐했고, 때로는 가눌 수 없는 슬픔으로 힘들었지만... 언제나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발 한 발 걸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가슴 뛰는 설렘과 감사가 넘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암환자'가 되어 계신 분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충격으로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분들을 전심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도 받으신 후 신앙생활 잘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땅에 있는 저희가 이렇게 기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크실까 생각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순수한 첫 믿음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져, 평생 짓누르고 있던 멍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믿지 않던 남편과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귀한 가정들을 볼 때면 "나 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그저 감사가 넘쳤습니다.

특별히, 2013년을 맞으며 목사님께서 '영혼구원의 해'로 선포하시고 전 교우가 결단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태가 심각하신 환우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베데스다부와 목장에서 그분을 위해 동시에 기도를 시작했지요. 신실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구원하시려 더는 지체하실 수 없으셨던지 너무도 빨리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으셨던 그분은, 첫 만남에 벌써 기쁘게 기도를 받으셨고 부목사님과 함께하는 심방도 흔쾌히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셨지만 볼 때마다 늘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회복을 놓고 기도했지만 결국 거동을 못 하시게 되었고, 조종연 목사님께서 직접 그분 댁으로 가셔서 예수님 영접기도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어떤 분보다 또렷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조차 없도록 기력이 떨어져 가셨기에 세례식에 도저히 참석하실 수 없음을 너무나 속상해하시는 그 마음이 더 안타까워 또 다시 조종연 목사님, 장로님, 저희가 댁으로 가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조출했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세례식이었고, 앉아 계시기도 힘드신 중에 어렵게 무릎을 꿇고 계시는 그 겸손하고도 갈급하신 모습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보았고, 함께한 저희에게도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병상에서도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전도도 하시며, 섬기시던 집사님들이 드린 성경 구절과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늘 소중히 가슴에 품고 계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실 때도 성경책과 함께 껴안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은혜로 왔던 천국환송 예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분의 지인들께서는 이 짧은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그분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기적' 이었고 그분이 참으로 복이 많았다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끝내 품에 안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바로 '기적' 이고 '복'임을 선명하게 확인해 주신 순간이었지요!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을 모르고 사셨지만 '암'이라는 큰 파도를 마주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그 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삶에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한 자매님은 얼마 전에 임마누엘의 가족이 되셨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시게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주님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위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누룩과 같은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을 생생히 보여주셨고 '암'이라는 단련을 통과하여 '정금' 같이 나아오는 많은 환우 분들과는 고난이 축복이며 복의 통로임을 그때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확증이 은혜가 되어 환우 분들과 주위에 서로 나누다 보면 또다시 강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각자의 주위로 흘러넘치겠지요. 알고 보니 그 형제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도해주신 먼 친척들이 계셨고, 그 자매님께서는 딸을 위해 기도하시며 믿음을 지키다 천국 가신 어머니가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잃은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 기도가 우리의 사명인 이유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2014년에도 베데스다부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암환우 분을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또 다른 잃은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소중한 추억과 감동과 은혜를 남기고 먼저 천국에 가계시는 많은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리며, 부족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베데스다부 김은희B 권사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사랑



“신나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사랑의 음식 팀장 권사님께서서는 한 주 동안의 소식과 메뉴를 전하시는 메일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쓰신다. 예전부터 보약은 정성이 라고 하듯이 우리 사랑의 음식팀의 음식은 보약이 될 만큼 정성을 들여 만드는 귀한 음식이다. 우리로 지치지 않고 그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권사님께서서는 이렇게 화이팅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 것이다.

사랑의 음식은 주방, 배달준비, 배달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방팀은 메뉴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매주 환우들의 입맛을 살려내기 위한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다. 화학조미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을 나게 하는 요리의 마술사들이시다. 뜨거운 불 앞에서 얼굴을 빨강게 익혀가면서 촉박한 시간 내에 음식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지친 눈빛이 아니라 오히려 초롱초롱한 사랑의 눈빛이

빛난다. 그리고 환우들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에게도 맛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고 싶어하시는 어른들의 따스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리고 배달 준비팀은 담아야 할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소독까지 하고 만들어진 음식을 정성껏 그릇에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가방에 담아놓는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카드를 손수 만드시고 직접 쓰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은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일 것이다. 배달팀은 이렇게 준비된 음식을 들고 환우들에게 배달한다. 배달팀의 모토는 ‘웃음’이다. 이 웃음은 환우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인 동시에 주방과 배달준비로 섬겨주신 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팀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환우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며 각자의 역할을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팀원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시끌벅적 담소가 가득하다.

내가 사랑의 음식의 배달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2012년 5월 초였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나의 소중한 친구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평소에 너무나 건강하였기에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친구의 집과 가는 도중의 다른 암환우댁, 두 곳을 다니게 되었다. 나는 먼저 책장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환우님 댁을 방문했다. 키모를 받고나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를 제외하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며 그동안 자신의 병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병원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스스럼없이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담아서 왔다. 그리고 친구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나는 수다를 즐겁게 떨고 왔다. 한 시간의 수다



를 매주 아쉬워하며 우리는 헤어졌다. 그렇게 일 년의 배달을 하는 동안 친구는 차츰 건강해져서 암이 모두 사라졌고 주부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오랫동안 휠체어에 앉아 지내다 작년부턴 급격히 쇠약해져 있는, 알고 지내던 언니 집으로 배달을 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도 나는 즐겁게 수다를 떨고 온다. 그 시간만이라도 고통을 잊고 웃기를 바라며...

나는 사람의 연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면서도 소중한 그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었다.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동안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조차 사랑을 미루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 위주로 먼저 쓰고 그 나머지로 남을 돌아보려고 했음도 깨닫게 되었다. 이 같은 회개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주 기쁨으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둘러싸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감사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대해 물어오시는 그 언니의 남편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고통을 아시기에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발걸음이다. 환우들이 그 하나님의 방문으로 맘과 몸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랑의 음식 배달팀 이진숙 성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2013년을 되짚어 보니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선교였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녀온, 생명길 선교 단체가 주관했던, 홍콩의 선교대회는 선교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0명의 작은 교회가 60명의 파송 선교사를 내 보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 대회에 모두 모여 서로 격려하며 어려웠던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영혼구원의 사역에 충실했다는 눈물 어린 간증을 듣게 되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는 일류대학을 나왔음에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만 가지고 선교지로 향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파송 선교사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보고와 기도요청, 토요선교 보고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게 되었고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구원의 간절한 마음도 갖게 되었고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위해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더 잘 섬겨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0월에 있었던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는 많은 것을 생각 하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북녘땅에서 필사의 탈출을 하였지만, 꽃제비 등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소망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험난한 길을 밤낮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이동하여 한국과 미국 등으로 보내어 새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역보고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디. 게다가 많은 성도님이 차량 구입비를 돕는 후원금을 내 주시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선교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벅찬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알콜 중독과 마약 등으로 신음하는 삶을 사는 나바호 인디언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

님, 추위와 외로움에 떨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떠도는 가난한 외향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은 잊지 못할 이야기였고, 선교 보고 후에도 많은 성도님이 기도와 물품으로 후원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남다른 선교 열정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북가주에도 세계 곳곳의 소수민족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선교할 길은 많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영혼구원 사역을 돕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몽골교회를 위해서는 놀이터를 지어주고 바자회를 돕기도 했으며 이슬람권의 이란교회 어린 자녀들의 교육지도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님과 대학부에서 대거 참여해 그들에 대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고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주변의 소수 민족을 통한 내지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바쁘고 여의치 않은 이민 생활 중에서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호피인디언, 중국, 네팔, 북인도팀원들 모두가 개인적인 사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각지의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가슴 뭉클한 감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다녀와서 상기된 표정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눈물로 증거할 때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운 작은 힘이었지만 선교 위원회의 큰 보람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선교 위원회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이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고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체험하며 달려왔습니다. 2014년에도 세계선교를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임마누엘 선교위원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선교위원회 이재규 장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여행

“우리는 당신의 딸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족의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울여름, 우리 가족이 ‘위치마일’을 방문했을 때 ‘위치마일’의 엄마에게 처음 해 준 말이다. ‘위치마일’은 국제야동후원단체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몇 년 전부터 후원하고 있는 하이티(Haiti)의 일곱 살 여자아이다. 하이티는 몇 년 전 있었던 대지진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나라이다. ‘위치마일’의 엄마는 싱글 맘으로 길거리에서 사탕을 팔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우리 두 아이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위치마일’을 만나자 쑥스러운 듯 말 한마디 못하고 쭈뼛이 서 있었다. 분위기에 익숙해지자 준비해 간 선물도 나눠 주고 집에서 연습해 온 전도용 큐빅도 꺼내 ‘위치마일’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단기선교를 가족 휴가로 다녀온다. 이번 하이티 여행은 멕시코 난민촌 방문에 이은 두 번째 가족 단기선교였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 혼자서 단기선교를 다니곤 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오지 못한 아쉬움을 아내

와 나누며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가족이 함께 단기선교를 가고 얘기를 했었다.

이번 하이티 가족 단기선교는 후원 아이 방문과 더불어 선교사님 방문, 두 가지 일정이 있었다. 총 10일의 일정 중, 하루는 ‘위치마일’을 방문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에서 머물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아이들과 함께했다. 아이들은 고아원과 난민촌에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선교사님의 우물 파는 일을 구경하기도 했으며 선교사 자녀 학교에도 출석해서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경험해 보았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선교사로 와 있는 청년부 형, 누나들과 함께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사실, 하이티는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 이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간 우리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현지인, 자동차, 가축, 물, 그리고 벌레, 어떤 하나라도 안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매일 저녁마다 엄청난 더위와 열대 모기들로 잠을 이루지는 못하는 두 아이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아이들은 하이티 생활



을 예상외로 불평 없이 잘 견디고 적응했다. 이런 두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아이들에게 가진 미안함,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우리는 문명 속에 살면서 문명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된 시간였다.

우리 가족에게 가족 선교란, 함께하는 즐거움이며 행복이고 축복이다. 여행을 통해 성경 속 하나님이 현재 우리 가족과 함께하심을 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어서 즐겁다.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먼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축복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일 것이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일까? 인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물든 세상,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물었다. 내년에는 어디로 가족 단기선교를 가느냐고.

하이티! 우리 두 아이에게 낯선 나라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지진으로 폐허가 된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이 두 아이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오늘 밤에도 두 아이는 하이티에 있는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다 잠이 든다. -조준호 목사





직장 선교회

실리콘밸리의 빛의 자녀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히 6:7)

오늘 서니벨 직장 선교회 모임에서 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의 할 일은 순종으로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담을 뛰어넘은 가지(창 49:22)와도 같이 거저 얻은 구원을 우리 모두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서니벨) 직장선교회는 어떤 새로운 신앙 모임이라고보다는 일상의 삶에 대한 것이며, 평생의 반이 넘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그분의 뜻을 청중하며 따르려는’ 같은 지역의 직장에 소속된 성도들의 작은 모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대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일터에서 ‘확인하며 다시 다짐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생업의 현장인 직장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이루어 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단순하며 당연한 일이지만 실상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임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대로 순종하며 모임입니다. (히10:25)

이런 성경적 요구는 교회나 목장 등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단의 유혹일 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들이 쉽게 사단의 공격에 깨어지기 쉬운 것은 이렇듯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은 탓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낱알 몇 개의 열매, 채소 몇 포기의 수확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히 내리시는데, 우리의 마음 밭이 교회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며, 가정에서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비를 환경에 무관히 흡수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이 먹을 만큼 넉넉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넓은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바이블밸리로 바뀌기를 원하는 모임입니다.

어제 목장의 한 집사님께서 기도제목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직장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어 놓았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에 그저 같이 기도만 드렸습니다. 직장선교를 한다면 다른 점이 없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현 직장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원천적으로 자물쇠를 채운 것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http://siliconangle.com/files/2011/01/silicon_valley.jpg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어 놓는 일 말입니다. 미리 선포했습니다. 혹 나중에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럼 그렇지’의 선한 기독교인의 본이 된다는 답을 얻을 수 있으신가요? 그러실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의 정체를 굳이 드러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선하신 때에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부족한 자신의 약점을 미리 드러내어 놓는 편은 어떤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교회나 목장이나 혼자 골방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를,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한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즐거워하십시오. 작지만 복음의 진리를 지닌 선교사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의 죄와 나의 약점을 사해 주시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분의 때에

비추어질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부모가 아들의 과거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일은 선교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합니다. 그러니 그 거룩함을 담대히 들어내시기를 권합니다. 죽지 않는 나의 자아와 싸우며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단 12:7)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그렇게 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김기홍 장로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흑흑…”

내 앞에서 스무 살의 청년이 부끄러울 것도 없이 울며 고백을 한다. 이 녀석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런데, 나는 저 나이에 때 하나님께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번 여름 단기선교에서 만난 한국이라는 청년이다. 이름도 참 거창하지. 그 청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았다.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셨던 몇 해 전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제가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중국땅 돈화 그리고 조선족.

그곳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곳이다. 부모님들이 일찍이 한국으로 소위 돈 벌러 가서 매달 생활비를 부쳐주면 그것으로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가는 곳. 모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생활패턴이 자리 잡은 곳이기에도, 도시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한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나태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내가 만난 교인들과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다.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고마움이 늘 삶의 곳곳에 묻어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늘 있는 곳, 어렵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늘 있는 곳, 영적인 교제와 대화가 전혀 낯설지 않은 곳, 그곳에서 나는 두 영혼을 품게 되었다.



한국이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신학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성수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그를 도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인정하고 소위 말하는 ‘청지기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늘 입버릇처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나는 뭐였을까?

돈화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여 갔을까, 몇 해 전에 놀러 와서 보았던 쿤밍. 그런데 이제는 관광이 아니라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가고 있었다.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

그곳에서 만난 이름 모를 아저씨. 행색이 초라하고 어쩌면 냄새나는 노숙자와 같았던 그분과의 만남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 파랑, 빨강 원색의 전통의상을 입고 지내는 묘족. 그 교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 아저씨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농사일로 먹고살기가 바빠서 성경을 배울 수가 없어요.”

갑자기 벼락같은 것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 듯했다. ‘하나님,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 금방 튀어나오는 나의 고백. 이제 그 아저씨 그리고 한국이도 선교지에 계시는 목사님과 신학의 첫발을 내디딜 것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니 나에게 뭘 하라고 이런 아주 부담스런 만남을 주신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가끔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영혼들이 늘 계속 내 마음에 살아 있으니까. 정말로 이건 삶의 부담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더 불쌍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부담과 순종 뒤에 오는 그 기쁨을 모를 테니까. 그 길 잃은 양들이 이제는 양치는 목자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영혼을 품지 않고서는 절대 모를 테니까. 혹 ‘그런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 난 내년 여름에 다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품을 것이다. -김성수 집사

1858년 미일 수호조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1859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미전도 종족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족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선입니다. 18세기,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중국과 일본 땅에 있던 선교사들은 이 미전도 종족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땅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에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반응,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용남 선교사 ‘복음에 미치다’ 중에서



십자가 사명을 위한 발걸음.

죽음도 고난도 막지 못할 그 발걸음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은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영혼구원.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교회에 주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해 힘써 달려왔습니다. 비전 청년부(한어 청년)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잃은 영혼 찾아오고, 찾은 영혼 제자 삼자!!’ 청년의 열정으로 주제를 외치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민 교회의 특성상 많은 청년이 교회를 찾고 공동체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와 캠퍼스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 구원...

그 십자가의 길!

채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부활절에 부활계란을 들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해피 이스터~!! 외치며 상점을 돌아다녔고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머뭇거렸던 청년들도 계란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며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만, 실상은 세상이 복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생명을 만들기에 전하는 자들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듣지 못함에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움은 이 발걸음마다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으니라”
 (눅 19:10)

청년들과 함께 때때로 마켓과 공원,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짧은 글의 전도지를 나눠주고 가볍게 말을 걸며 ‘사영리’를 읽어주곤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찾아온 영혼들을 섬긴 ‘새가족부’ 목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많은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 주위에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돌아보아 하겠습니다. 작은 사랑이 감동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영혼 찾아오고, 찾은 영혼 제자 삼자!! 올 한해 청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제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많은 세상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이들은 이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이제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나눠야 할 것입니다. 작은 밀알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비전청년부가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가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더욱 십자가의 사명을 이룩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비전 청년부 김승환 전도사

친구 소개장

고기다루는 4인방 :

임마누엘 주방에서 매 주일 만들어 내는 친교음식이 특별히 맛이 있는 이유는, 만드시는 분들의 요리 솜씨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비밀은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여러 교우의 정성 어린 사랑의 손길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그중 뒤에서 말 없이 매우 중요한 봉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 바로 김무일, 장은수, 김충현 집사님과 김성국 장로님 4인방이다. 김치찌개나 국에는 보통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그 많은 양의 고기를 요리 별로 적당하게 손질해 주어 음식 맛을 더하게 한다.

토요일 새벽기도 후 교우들과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의 이제는 서서히 고기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정다운 신호에, 한 분은 창고에 가서 고기 썰는 기계를 내오고 일부는 철판 접시에 손질할 고기를 적당히 나누어 일사천리로 준비를 마친다. 고기를 기계에 집어넣는 일부터, 썰어져 나온 고기를 검색하는 일, 지루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는 대화 속에 대어섯 차례 고기 썰기를 반복하여 그날 메뉴에 적당한 크기의 고기가 되었다고 만장일치가 되면 드디어

‘작품’이 되어 주방에 넘겨 준다. 작업이 끝나면 기계 분해, 청소, 조립, 커버 씌우기, 창고 저장의 작업공정을 거쳐 만면에 흡족한 미소를 짓는 네 분을 바라볼 때면, 맛있게 음식을 들며 친교를 나눌 교우들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져 절로 힘이 생긴다. 지난 일 년 동안 성실히 봉사해주신 네 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보여 주신 사랑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 하련다. -최상훈 장로





정재수 형제님과 강대학 형제님 :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만 치우는 사람의 부지런한 손길이 있어 우리는 깨끗한 공간을 즐긴다. 무슨 일이든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제나 일찍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며 사람들을 반갑게 대하시는 정재수 형제님. 수많은 무거운 의자들을 옮기느라 늘 손목이 아프셔도, 항상 근면하시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좋다.



만약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분이 없다면, 화장실은 금세 쓰레기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교회 2천여 식구의 화장실을 청결히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는 분은 말 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강대학 형제님이다. 화장실은 누구나 사용하므로 모든 분이 청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주일오후가 되면 때때로 화장실은 이곳저곳 떨어진 휴지로 어수선하다. 이럴 때 “아유, 화장실이 왜 이리 지저분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떨어진 휴지를 집어 쓰레기통에 넣어보자.

청소해 주시는 두 분께 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곁에서 지켜보는 이

루이스 :

“아모르 파라 에데르노 빠드레시또... (Amor para eterno padresito)”

교회 식당에서 6년을 넘게 변함없이 섬기는 루이스 형제와 통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구요? 정확한 뜻이나 문법에 맞는 말은 아니어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인 아버지 같은 보스”라는 의미로 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교위원장을 섬길 때부터 형제애를 키워 나가며 서로를 세워주었고,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동생처럼, 형님처럼 만날 때마다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는 서로가 “나의 보스”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가정일이라든지, 건강이야기 그리고 가끔 푸념도 늘어놓지만, 곧 늘 하는 말 “괜찮아요...”로 스스로 위로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 루이스 형제도 중년이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있다면 좋은 각시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루이스 형제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고정훈 장로



항상 웃자



할렐루야! 친교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교부는 비록 적은 인원에 불과 하지만 최상훈 장로님을 비롯하여 서로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 되어 기쁨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임마누엘 모든 교인을 위해 아주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서브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교부는 지치고 힘이 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편하게 수고하자고 했습니다. 이왕 일 년 동안 봉사할 것이라면 얼굴에 'Smile' 하면서 밝은 미소로 보는 이에게 기쁘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자 서로 격려했습니다. 올해 친교부 Motto는 '친절한 주방 봉사, 웃음이 항상 있는 봉사'입니다.

친교부 올해 최고 메뉴는 북엇국 같아요. 처음에 시도할 때는 잘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최승희 권사님과 의논하면서 "북엇국 한번 해 볼까요?"하니 무조건 해보자고 yes 하시더니

"맛이 없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메뉴는 무조건 다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 북엇국을 안 해봐서 조금은 걱정이 되었는데 의외로 많은 교인께서 맛이 매우 좋다 하시면서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으니 정규메뉴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자주 드시면 처음 느낌과는 달리 질리실 것 같아 자주 하진 못했습니다. 비빔밥 역시 좋은 메뉴이고 우리 교인 누구나 다 좋아하시지만, 나물 몇 가지만 준비하여도 손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음식

식이라 자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년 동안 친교부 봉사를 하면서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분께서 맛있게 식사하실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가끔은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같은 양을 준비했는데도 음식이 모자라서 그때마다 지혜를 모아 잘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기는 올 여름 어느 권사님께서 집에서 직접 키우신 여러 가지 야채들을 모아 매주 가지고 오셔서 친교부원들과 비빔밥 등을 같이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올여름처럼 풋고추를 정말 많이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일 아침마다 친교부를 위해 맛있는 빵을 준비해 주셔서 아침 공복을 채워주신 집사님, 여러모로 이것저것 챙겨주신 모든 분, 이분들의 응원으로 지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주방 봉사에 순번제로 돌아가며 지치지 않고 봉사해 주신 모든 목장. 어떤 목장은 어린 자녀들까지 기쁘게 참여하여 교인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양파와 파를 준비하시며 우시는 눈물과 양파 집사님, 고기를 잘 소화할 수 있게 정성껏 잘게 썰어 주시는 고기 담당 장로님과 집사님, 누구나 하기 힘들어하는 설거지를 1, 2, 3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해 주신 친교부원들, 넉넉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재량껏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상훈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친교부 김현주 집사





옛날에 예배당

에녹과의 만남 — 박용은 권사님편

믿음의 삼 대가 한지붕 아래 오손도손 화목하게 살며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에녹초원 박용은 권사님께 어린 시절 옛날 예배당 이야기를 부탁드렸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송마리'라는 작은 시골, 벽촌 마을 땅 부자셨던 권사님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개화기 초,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셨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김포 지역에 설립한 5개 교회 중 한 곳인 송마리 교회는 1897년 11월 20일 박 권사님 증조할아버지의 윗마당 초가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송마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셨고 할아버지는 2대 장로, 친정 아버지는 3대 장로로 한국 교회의 산 역사이기도 한 송마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셨으며, 대를 이어 교회를 지킨 믿음의 명문가 둘째 딸이신 권사님 또한 이곳에서 믿음의 터를 닦으셨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토요일에 미리 준비해 놓은 점심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 어깨에 둘러메시고 주일날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시려 먼 길을 걸어 교회에 오시던 할아버지, 집안의 일꾼들조차도 주일에는 모두 쉬게 할 만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던 할아버지의 삶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자랐다고 하신다.

그 당시 서울에서 명문대학까지 졸업하셨던 친정 아버지께서도 서울로 갈 기회가 많으셨지만, 송마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김포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형편이 어려운 시골 교회인 지라 목회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비어있는 강단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께서 모든 공예배의 설교를 도맡아서 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중학 시절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수요일 저녁마다 초종을 치고 20분 후에 재종을 치는 일을 오래 하셨다고 한다. 키는 작는데 종각이 너무 크고 높아 박자를 맞춰 종을 치려면 줄을 잡고 매달린 채 종에 달려 올라가곤 했었다고 한다. 철없던 중학 시절부터 성가대와 유년부 교사, 강단 꽃꽂이, 겨울이면 화덕에 불을 피워 교회를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일과 교회 청소 또한 언제나 권사님의 독차지였다고 한다.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교회는 봄이면 분홍 진달래가 만발한 진달래 꽃산으로, 가을이면 들국화 꽃산으로 변해 봄에는 진달래를 한 아름 꺾어다 강대상을 장식하고 가을이면 들국화를 화병에 가득 담아 강단을 꾸미던 소녀였다고 한다.

그 당시 송마리 교회의 내부 모습은 가운데 휘장을 치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으며 교회 바로 앞에는 두 분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묘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 이제는 옛날의 추억이 깃든 동네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초가지붕이던 교회가 양철지붕에서 기와로 그리고 예쁜 벽돌건물로 변할 만큼 긴 세월이 흘렀어도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린 교회 종소리를 송마리에서는 여전히 들을 수 있는 지금도 변함없이 종이 울리는 교회라고 한다.

이 종의 유래는 할아버지께서 환갑을 기념하여 종각을 세우셨는데 충청도의 유명한 종 제작소에서 굉장히 큰 종을 맞춰 오기까지 1년이 걸렸고 종각에 달기까지와 십자가 지붕을 달기까지도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가녀린 소녀가 매달려 치던 그 종소리는 십 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은은하고 좋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종소리만 듣고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알 수 있게 해 준 복음의 종이였다. 교회 마룻바닥을 물걸레질하던 시절, 대롱대롱 매달려 종을 치던 시절, 11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진달래, 국화, 초가집이 재개발되어 공장지대로 변했지만 2, 3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도... 송마리 교회의 종은 변함없이 울릴 것을 상상하시면서 종치기 소녀의 아름다운 지난 추억과 감사의 마음이 변해 어느새 권사님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히셨다. 청교도적인 신앙훈련으로 6대째 믿음의

전통을 이어 오고 계시는 권사님은 “옛날 교회들은 초대 교회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들도 사랑이 점차 식어가고, 사랑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어요.”라며 안타까워하셨다.

인터뷰 내내 이토록 보배로운 믿음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한 식구임이 감사하고 개회기 때 송마리 작은 마을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어 가보로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지금까지 소중하게 이어오고 계시는 박용은 권사님과 그 자손들의 믿음의 저력이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나의 어린 시절 예배당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했던 그때 그 시절, 차가운 마룻바닥에 빨간 방석 깔고 발가락이 저려가면서도 무릎 꿇고 예배드리던 시절,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가도 주님이 오시려나 고대하며 기다리던 순수했던 시절,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더없이 부유했던 시절, 소박하고 간절하게 예배하던 마음의 고향 같은 옛 추억이 오롯이 담긴 옛날의 예배당이 자꾸만 그리워진다.

- 편집부 김정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판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입니다. 부를 때마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낙심되어 있을 때 힘이 다시 생기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도 합니다.

저는 현재 IT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이곳 산호세 지역에 직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IT 분야의 일을 이곳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봉급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닌 데다가 아직 값야 할 빛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당시 아직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함께 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도 없었고, 수입은 정해져 있어서 제 나름 렌트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정해 놓고 아파트를 찾아다녔습니다. 몇 개를 찾은 후에 제 아내를 불러 이 중에서 골라 보라고 보여 주었습니다. 다 보고 난 아내의 모습은 실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득해 보았지만 더 이상 기대치를 낮출 수 없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온 아내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미국땅으로 데려오면서 차마 한계를 넘어 보라고까지 요구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뽀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때부터 저희 부부가 함께 살 집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찾는 중에 아내의 눈에도 만족할 만한 예쁜 스튜디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원래 \$1250 정도 되던 스튜디오를 \$900도 안 되는 돈으로 렌트를! (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음)

그 후 아이들이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거의 같은 budget 안에서 1 bedroom 또 2 bedroom 아파트로 옮겨 주셨고, 한 직장에 7년을 다니면서 월급이 그리 많이 오를 것도 아닌데 3명의 자녀를 둔 지금은 Los Gatos 지역에 3 Bedroom의 작은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요? 스톱옵션? 저축? 승진? 유산? 가족에게 돈을 받아서? 그런 것 하나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하자면 주어진 지면이 너무 짧지만, 단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저의 연약한 것을 계속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못 박아두기 위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저의 한계를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목장 식구들 앞에서 때로는 몇 백 볼 때로는 몇천 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제 모습을 보이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목장 식구들과 찬양팀을 비롯한 많은 분의 기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 저와 제 아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과분한 집을 주신 이유를 알아가는 것은 아마도 우리 가정이 계속 기도하며 알아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찬양팀에서 팀장으로 3년 넘게 지내면서 어려운 과정 중에 있는 팀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귀한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사업이 위기에서 구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을 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문제가 있지만, 오늘의 한숨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이제 곧 나의 찬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예배 찬양인도자 김용훈 집사





송년 가족 모임 음식 **샤부샤부**

살짝 헹글 때를 묘사하는 의태어 샤부샤부에서 유래한 요리 '샤부샤부'.
쌀쌀한 겨울 국물 당기는 날,
가족 각자의 입맛에 맞는 야채나 고기, 만두, 국수류를 국물에 넣어 헹구듯 흔들 때,
올 한 해의 시름과 고민이 다 씻기어 가는 연말 식탁을 만들어 보자.



옛날 우리 가족은 할머니로부터 고모 삼촌 우리 6형제, 온 가족이 명절과 생일, 또 무슨 날이 되면 모두 모여 예배드리고 기타에 맞춰 찬양을 드리던 그리운 시절이 있었다. 여러 가지 미리 예고된 날은 음식을 잘 준비하였으나 갑자기 모임이 있거나 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늘 샤부샤부를 준비하여 웃음과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준비 시간도 짧고 식탁이 화려하며 건강적이고 맛있는 음식이다. 지금도 갑자기 손님을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야채, 해물, 고기, 국수로 준비하곤 한다. 준비한 재료와 소스에 따라 늘 개성이 넘치는 식탁을 만들 수 있어 좋다. -홍성희 권사

***사부사부 준비물:**

쇠고기(채끝, 꽃등심 -1인분 100g), 새우(좋아하는 해물류)

야채 - 배춧잎, 썩갓, 표고버섯, 팽이버섯, 죽순, 대파, 두부, 어묵, 우무, 우영채, 칼국수

국물 - 물6 컵, 다시마 20cm, 멸치 20g, 가다랑어포 20g, 정종1큰술, + 미림 ½ 컵, 정종 ½ 컵

양념 - 다진 파, 고춧가루, 무 갈아 꼭 짠 건더기, 깨, 레몬

***소스:**

간장소스:간장 ½ 컵, 국물 ½ 컵, 식초 ½ 컵, 을 섞은 후 레몬 slice를 넣어 두어도 좋다.

참깨소스:국물 5큰술, 참깨2큰술, 땅콩버터 1 큰술, 설탕 ½ 티스푼, 그 외 고춧가루, 케첩, 간장,

정종, 레몬즙 각 ½ 티스푼씩

***만드는 법**

1. 국물 만들기 재료로 미리 육수를 우려내 필요할 때마다 보충해 넣는다.
2. 적당량의 육수를 냄비에 넣고 끓이다 야채를 넣어 익힌다.
3. 위의 양념을 적절히 첨가하여 맛을 낸다.
4.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고기를 넣어 살짝 흔들어서 익힌다.
5. 고기와 야채를 건져 소스에 찍어 먹은 후 알짜 진국이 된 국물에 만두나 면을 넣어 익혀 먹거나 밥, 다진 야채, 김을 넣고 끓이다 계란을 한 개 깨뜨려 넣어 계란 죽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함께 쓰는 동화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

캐럴이 울려 퍼지는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 아름 선물을 안은 채 즐겁고 유쾌한 눈웃음을 건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추운 밤거리 사람들이 내뿜는 입김은 마치 난로에서 요란하게 끓어대는 주전자의 수증기처럼 보입니다.

“아, 따뜻한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언 손을 호호대는 소녀의 입김은 물 끓는 주전자의 수증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 형겅으로나 칭칭 동여맨 얼굴, 앞머리 끝과 눈썹에는 성에꽃이 피어있습니다.

“성냥 사세요.”

한 아름 선물을 안은 사람들은 소녀를 내려다볼 수도 없습니다.

소녀의 목소리마저 누더기처럼 초라합니다.

다 떨어진 운동화 속의 맨발이 어느 집 창문 가에 멈춥니다.

벽난로 속 불꽃이 훨훨 날아오르는 방 안 풍경은 들리지 않아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의 선물이란다.”

아이가 달려가 선물을 낚아챈다. 아이가 앉았던 식탁 위 칠면조 냄새를 소녀는 애써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냥 소녀는 익숙한 옥수수 죽 냄새로 대신 맡아봅니다.

방 가운데 까르르 웃음이 터집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치고 아이와 아빠가 손을 잡고 흥겹게 원을 그립니다.

그들의 얼굴은 방 한가운데 높게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빛이 납니다.





소녀는 추위를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성냥을 그어봅니다.
벽난로가 아니라 성냥불에나마 언 손과 발을 녹여볼 생각입니다.
야까 마차를 피하다 성냥이 든 주머니를 진흙탕에 떨어뜨린 바람에 성냥 대부분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꿈은 손으로 다섯 개비나 부러뜨린 후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지지직”

눈앞에 저 방 안의 벽난로와 똑같은 벽난로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언 손과 발을 벽난로 앞에 바짝 갖다 뒀습니다.
발끝이 달는가 싶자 벽난로가 사라졌습니다.

“지지직”

소녀는 다시 성냥을 그었습니다.
방 안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트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 잠시 멈추려는 순간 트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녀는 비틀거리며 언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간신히 또 한 개비를 그었습니다.

“지지직”

생선 먹어보지 못한 칠면조 요리의 근사한 식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녀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대어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손을 휘저어 칠면조의 다리를 뜯으려는 순간 식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비만 남았습니다.

이 동화의 끝을 아십니까?

자,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맺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영화방〉

A Cry from Iran 이란의 외치는 소리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수천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중 한사람 Haik Hovsepian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20년 전 이란에서 시작된다. 1993년, 10년째 복역 중이던 무슬림 배교자 Mehdi Dibaj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그의 사령 집행 명령서가 이란의 복음주의 크리스천 지도자인 Haik Hovsepian에게 새어나가게 되고 그는 이란의 이슬람 법정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 캠페인을 펼친다. 세계 언론의 압력에 굴복, 이란 정부는 사형 집행 며칠 전 Mehdi Dibaj를 석방한다. 그러나 그의 석방 3일 후 Haik Hovsepian은 납치되고 그는 전신에 26개의 자상을 지닌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다. 석방되었던 Dibaj 또한 납치되어 주검으로 발견된다. 이란 정부는 그의 죽음에 전혀 개입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이란 크리스천들과 사건을 주시해 온 이들은 그가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음을 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http://www.papastors.net/resource/a-cry-from-iran/>



The untold story of Iranian Christian martyrs

이란 순교자 이야기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란 Haik Hovsepien은 어린 시절 구두닦이를 하다 13세 때 성경공부에 초대 되어 예수를 영접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다. 젊은 시절 생후 6개월 된 첫아들과 선교사의 자녀들이 사망한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그는 너무 울어 눈이 통통 부은 채 죽음이나 삶이나 주님으로 인해 할렐루야라 말한다. 늘 무슬림 극렬주의자의 살해 위협을 당하나 Mehdi Dibaj 석방 캠페인을 통해 '죽을 준비가 된 사나이'로 알려지게 된다. 그의 순교 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추도회의 추모사가 인상적이다. "굿나잇, 아침에 만나요." 또 다른 추모사는 그를 주께 심장을 두 번 바친 사람이라 말한다. 한 번은 예수를 영접할 때, 또 한 번은 교회에 바쳐 실제 심장에 깊은 자상을 입고 사망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순교가 20세기 이란에서 일어남이 믿기지 않은 채, 눈을 감으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그를 떠올린다.

그의 순교는 전 세계인에게 이슬람을 'I Sincerely Love All Muslims'로 받아들이는 사랑 운동의 시작이 되었으며 오늘날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이란 지하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형제들은 이란 국외에서 크리스천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영화를 전공하던 그의 두 아들이 이를 제작 감독하였으며 각종 영화제에서 10여 개의 다큐멘터리 필름 상을 받았다.

“만일 히브리서가 이 시대에 기록되었다면 Haik Hovsepien은 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Dr. Ravi Zacharias

“그는 단연코 우리 시대 믿음의 영웅이다.”

—Dr. Carl Moeller



The Hovsepien Brothers with one of their awards for A Cry From Iran.

<http://www.journalchretien.net/+6688-two-brothers-honor-their-father-s-martyrdom-in-award-winning-movie-a-cry-from-iran+?lang=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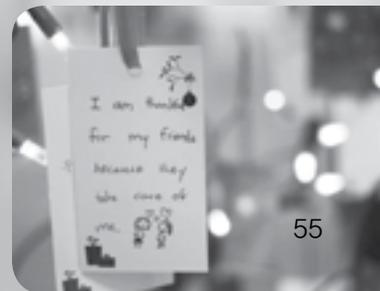
Thank You Tree

- 모든 어려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함께하심에, 사랑으로, 은혜로, 위로로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목장에서 귀한 분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크게 부하게도 아니하시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케도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매 순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네팔의 영혼을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 부족하고 때로 미련한 우리 임마누엘 가족을 기도의 끈으로 말씀의 채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 가시는 분 평안으로 가게 하시고 남은 우리는 천국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 아침에 일찍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4년 동안 산호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름다운 목장과 미안마 선교 허락하심을 감사.
- 아버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웃으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시게 도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 소중한 만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살 환경을 바꿔주셔서 좋은 교회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아들을 주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 눈물이 멈추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함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신앙의 동반자 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주의 축복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호흡이 있어서 찬양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주님 안에 저희 가정을 세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 이른 아침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저희 목장에서 세례받는 은혜를, 새 가정을 보내주시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 새 직장 허락하셔서 감사드리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 제가 기도로 간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 저희 가족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항상 같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 영혼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가정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많은 연단을 통해 더욱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 기도하는 아들 주심에 감사, 열정적인 남편 주심에 감사.
- 애아빠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 세상에서 두 번째 강한 이름 엄마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



감사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을 때, 마음에 부담이 많았었다는 고백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제 고작 40년을 살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는 고작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감사에 대한 좋은 글을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감사를 드린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 글쓰기를 주저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감사할 것이 적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 마음이 둔하여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일들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해야 했었기에 감사에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을 하나씩 고집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상처가 있으신 아버지와 불교를 믿으신 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떤 집사님께서 어머니를 전도하시고 초등학교 시절 잠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역시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으시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 급우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번에는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도 전도했구요. 그러나 저도 교회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지만, 이미 그때는 저의 마음도 상처로 인해 눈과 귀가 가리어진 상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럽지만, 아내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기를 강요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반목하고 분열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있으신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과 일련의 좋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그리고 젊은 시절 저의 건방짐이 교회와 기독교를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 규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복이라고 제가 군대에 입대하며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저 자신이 얼마나 건방지고 어리석었던지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전에 많은 기회가 있었을 때, 조금 더 품나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땠을까 약간은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나를 훌륭하다고 착각했던 인격에 대



한 실망감들이 저로 하여금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남들처럼 뜨거운 감격과 눈물은 없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둔해서 그런 순간들에 감사드리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분을 보여주는 아내를 주신 것,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으로 주신 딸아이, 상처를 극복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서 엔지니어 시절 희망 사항뿐이었던 실리콘 벨리에서 자격도 없는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적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들과 교회 식구들을 주신 것, 좋은 직장을 주시고, 새로운 집도 주신 것 등등... 돌이켜보면 자격도 없는 보잘것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저에게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감사해야 할 것 중에는 조금 낯선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료들의 배신으로 인한 사업의 실패, 결혼에 반대하셨던

장모님, 실수투성이 유학생활, 박사과정 진학의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 산호세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정리하고 당한 일, 어려웠던 직장 생활, 또 한 번의 정리하고 등...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고달픈 시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틈만 나면 나 자신이 먼저 나오는 저를 다듬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또 다른 모습의 은혜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련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의 믿음은 작고 작은 지금 이 믿음의 크기보다도 훨씬 작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하나님의 세심하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제게 가장 알맞은 여러 형태의 은혜들로 부족한 죄인인 저를 다듬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대해 보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주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기성, 규장, 2012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조건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초점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이 남기고 싶은 두 가지 부분은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나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직, 목자로서 가야 할 길은 실제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믿음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상의 집사

예수님과 하나 됨,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 사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책이어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의 잔잔하면서도 강한 설교를 듣는 듯하고 내가 말씀의 진리 앞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한 부족함이 그지없음이 계속 인정되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어졌다.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일을 한다는 모임에서조차 예수님 생각보다 나에게 우선적 관심이 있었고 주님 위해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지만, 입술의 고백 뿐 실제로는 내 모습이 드러나면 기뻐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항상 나를 살피며 평안함 안에 있기를 원하며, 소박한 욕심은 욕심이 아니고 내 가정만이 우선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기며, 사랑도 없고 절대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더 많은 믿는 자의 모습들... 바로 나의 모습!! 읽으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 다시 또 깊이 회개하게 하셨다. -조정희 권사



먼저 이 책을 선택하여 읽게 해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이 필요한 저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였다 하지만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남이 없음은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귀한 손님으로만 모셨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한 문장마다 뜻이 깊은 구절을 읽으면서 묻는 말들은 내 마음에 찔림이 되었으며 때로는 부끄럽고 또한 나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는 것 같았으며 나의 나약한 영적인 모습이 거울에 비춰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현숙 권사

이 책은 이제까지의 메마르고 습관화되어버린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책 후반부에 나오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아 나도 영성 일기를 쓰는 삶을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장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을 깊이 있게 새로운 각도에서 도전해주었습니다. 제1장 '예수님과 하나 됨'에서는 내가 주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제2장 '예수님과 동행'에서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그것을 매일 일기로 쓰는 '영적 일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3장 '예수님과 사랑'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그분이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된다고 하십니다. 형식적인 나의 신앙생활 중에 내가 예수님을, 교회를, 목장을 섬긴다고 때론 힘들게 또 어렵게 지내왔지만 이제 예수님 없이 단순히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자아와 명예와 편안함 속에 집중되어 있었지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없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학수 집사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희생이 내 손해가 아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깐 그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 후의 가벼움과 시원함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후에 얻게 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은희C 권사

이 책은 나로 하여금 처음 세례받았던 그때로 돌이키길 강권했다. 신앙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나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면... 나의 삶은 언제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넘쳐나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는 그 이유를 답해주고 있다. 예수님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맘속에 말씀하신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부족한 나를 성령님께서 도우심에 감동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말씀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은 삶의 목적으로 결단해 본다. -최윤자 권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는 아름다운 시(詩)가 있고, 지혜의 글이 있고, 애정어린 편지도 있지만, 젊은 시절 나에게 시련을 주었던 말씀도 있다. 1977년 대구의 한 작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다. 축복의 말씀을 뽑는 시간에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헌금 주머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뽑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참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나는 이 말씀을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로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입신양명을 꿈꾸던 나에게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나의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야속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를 빠지기도 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했다. 이러한 불안함은 예비고사를 망쳤을 때 극에 달했고 본고사 실패로 이어졌다. 진정 하나님은 내가 신학교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1979년 재수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서울에 가까운 연고가 없었던 나는 먼 친척의 배려로 중앙시장에 있는 기름집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살게 되었고 주일 저녁에는 왕십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저녁 설교를 담당하셨던 윤두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부를 때에는 가슴 후련해지는 평안함이 있었다. “가진 고민을 강대상 앞에 토해 놓고 예배 후 주섬주섬 다시 집어 먹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설교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뽑기’ 장면을 기억하실 주님이 나

를 땅 끝까지 보내실 것 같은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무슨 대학에 갈 것이냐고 묻지 않으셨고, 나는 지난해 떨어진 대학에 다시 응시하였다.

희망했던 대학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신학교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대학 합격의 감사보다는 신학교를 피해서 다행이라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대학 입학 후 하나님의 위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졌다. 아쉽고 힘들 때에는 가끔 찾아되었지만, 평소에는 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사이가 되었다. 그 후 나의 신앙은 시편과 잠언에 의해 명맥만 유지되었다. 시편은 나의 문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켰고, 잠언은 나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읽는 명심보감이었다.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는 신학교로의 소환을 피하고자 하루에 시편을 한 장씩 읽었고, 그다음에는 잠언을 읽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남았다. 한번 훈이 난 경험이 있기에 교회를 빠질 만한 용기도 없었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기도’하는 자매를 보내셨고, 덤으로 세 자녀도 주셨다.

2008년 초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다. 죽음이 나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경에 나오는 ‘유언적 메시지’들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왔다. 신명기에서 광야생활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당부하는 모세의 애뜻함이 느껴졌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과 감옥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심정에도 공감되었다. 특히 바울은 성경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는 나의 태생적인 줌스러움에서 나를



해방해 주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데 더 이상 내가 따져서 무엇하랴!

신학교를 피하려고 했지만, 성경학교를 졸업시키셨고, 목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목자가 되게 하셨고, 선교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하셨다. 젊은 시절 나를 힘들게 하

였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삶의 일부가 되어감에 감사를 드리며,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되는 “참 좋은 말씀”이 되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읽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신약 읽기를 마치기 위하여. 아멘. -김영곤 목사



2013년을

보내면서...

“우리 임마누엘의
아이들을 위해
항상 봉사과 수고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새 일꾼들을 위한 임직 예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Tel. 408. 263. 5100
www.kepc.org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유택중
기획	이윤선
진행	김정신/김범진/장은영
교정 및 교열	김백미/정현주
사진	김범진/윤영숙
편집디자인	홍정희